AI시대, 정체성 위기…'제법무아'서 길을 찾다

제7회 서울국제 명상 엑스포
명상 콘퍼런스 섹션 1

동국대 불교학술원 종학연구소(소장 정도 스님)가 주관하는 제7회 서울국제명상엑스포의 하이라이트 행사인 '명상 콘퍼런스'가 9월 17~18일 동국대 본관 남산홀에서 열렸다. 국내외 석학과 명상 전문가 8명이 기술과학시대에서 선명상의 위치와 역할, 선명상의 웰니스적 가치에 대한 연구 논문을 발표했다. 콘퍼런스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편집자 주〉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사사키 시즈카 교수


미나스 카파토스 교수

사사키 교수, AI시대 불교 역할 조명
경쟁 벗어나 자기 단련 기쁨 알길
카파토스 교수, '마음의 본질' 발표
개별적 마음 · 보편적 마음 관계 조명

9월 17일 열린 제7회 서울국제명상엑스포 명상 콘퍼런스 섹션1은 '기술과학시대의 선명상'을 주제로 해외 석학들의 발표가 진행됐다.

사사키 시즈카 일본 하나조노대 특별교수는 '인공지능 사회에서의 불교의 중요성'을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AI의 발전으로 인간의 존재 가치와 정체성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불교의 '제법무아(諸法無我)'를 통해 행복의 기준을 돌아봐야 한다"고 제언했다.

사사키 교수는 AI 혁명이 가져올 변화로 인간의 '존재 가치'와 '정체성' 상실을 꼽았다. 그림 실력을 쌓아온 일러스트레이터가 AI의 등장으로 자신의 노력과 직업의 가치를 의심하게 되는 상황을 예로 든 사사키 교수는 일자리 상실이 정체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을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고통의 원인을 인간이 가장 뛰어난 존재라는 믿음과 자아에 대한 집착에서 찾았다. 사사키 교수는 "'아(我)'에 의지하기 때문에 그 '아'의 우월성이 부정당했을 때 고통이 생겨나는 것"이라며 "'아'에 실체가 없음을 자각하는 사람은 남과 경쟁해 이기는 것을 행복이라고 생각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I시대를 넘어설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제법무아'를 제시했다. 인간의 본질을 여러 요소가 결합하고 상호작용하는 현상으로 보는 '제법무아'를 통해 나라는 실체는 존재하지 않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사사키 교수는 "AI와 인간의 격차는 벌어지게 돼 있다. 그럴 때 '제법무아'를 설파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큰 의미를 갖는다"면서 "AI를 이기든 AI에게 지든 그런 일과는 상관없이, 자신이 하고 싶은 일, 납득할 수 있는 일을 계속해 나가는 것이 행복의 기준이 된다"라고 강조했다.

진정한 기쁨은 "진심으로 하고 싶은 일을 찾고, 그 길을 한 걸음씩 걸어 나가는 자기 단련의 기쁨"이라는 게 사사키 교수의 주장이다.

평소 자신에게 자주 제기되는 질문 중 AI의 깨달음에 대한 견해도 밝혔다. 사사키 교수는 AI가 탐욕·분노·어리석음을 지니지 않는다는 자신의 관점을 근거로 "AI는 이미 깨달았다"라고 답했다. 반면 인간은 깨달음과는 먼 존재임을 상기하며 "원래 열악한 상태로 태어난 우리가 어떻게든 보통의 위치로 가기 위한 길이 수행"이라고 설명했다.

젊은 세대에게는 AI와의 경쟁보다 자신이 진심으로 하고 싶은 일을 찾으라고 조언했다. 사사키 교수는 "진심으로 하고 싶은 일을 찾았다면 그 길을 나아가기 위해 AI의 힘을 빌리라"며 "AI와 2인 3각으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계속해 나가는 것, 그것이 AI 사회에서 만족스러운 삶을 실현하는 방법"라고 밝혔다.

앞서 미나스 카파토스 미국 채프먼대 전산물리학 석좌교수는 '마음의 본질' 주제 발표를 통해 마음의 본질과 인간 존재의 관계를 양자물리학과 고대 철학의 관점에서 살폈다. 카파토스 교수는 마음이 예술·수학·음악·과학·철학을 발전시키는 데 관여하지만, 어떻게 생겨나는지는 상당 부분 밝혀지지 않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마음은 인간만이 지닌 고유한 것인가", "마음에는 뇌가 필요한가"라는 질문을 통해 탐구 대상을 제시했다.

양자역학과 마음의 관계에 대한 견해도 밝혔다. "우주에 대한 양자적 관점에서 마음은 관찰되는 것에 '이해된 실재'라는 성격을 부여한다"고 밝힌 카파토스 교수는 '개별적 마음'은 바다의 물방울에, '보편적 마음'은 바다에 비유하며 "모든 개별적 마음이 보편적 마음을 이루며 그 보편적 마음은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의 중심"이라며 "우리가 이 단순한 진리를 이해한다면 보편적 마음의 진리는 우리 것이 된다. 보편적 마음의 본성은 곧 우리 자신의 내면적 본성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생각은 보편적 마음에서 나와 보편적 마음으로 돌아간다"며 "공간을 넘어 시간을 넘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넘어 존재하는 영원한 진리는 보편적 마음"이라고 밝혔다.

"간화선, 답 모으는 공부 아니다"

사사키 교수, AI시대 불교 역할 조명
경쟁 벗어나 자기 단련 기쁨 알길
카파토스 교수, '마음의 본질' 발표
개별적 마음 · 보편적 마음 관계 조명

"간화선은 답을 모으는 공부가 아닙니다. 화두라는 거대한 망치를 들고 '나'라는 견고한 상자, '지식'이라는 오만한 틀을 깨부수는 공부입니다. 위대한 자아 해체 작업은 최첨단 AI도 결코 대신할 수 없습니다. 기술의 정점에 선 오늘날 우리는 더욱더 장엄하게 화두를 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안국선원장 수불 스님이 AI시대에 자기 존재의 근원을 묻는 간화선 수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스님은 동국대 불교학술원 종학연구소가 9월 17~18일 동국대 본관 남산홀에서 개최한 제7회 서울국제명상엑스포 명상 콘퍼런스에서 'AI시대, 왜 다시 간화선인가'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진행했다.

수불 스님은 AI가 인간의 지적 활동을 돕는 유용한 도구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자기 자신을 깨닫는 일은 절대로 대신할 수 없다고 밝혔다. 스님은 "오늘 우리는 AI가 무수한 정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능력을 확인했다"면서 "그러나 간화선은 답을 얻기 위한 공부가 아니다. 답을 구하고 있는 바로 '그놈'을 돌이켜보는 공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화두에는 개념적인 정답이 없다"면서 "정답이 없어서가 아니라 한두 줄의 언어나 정답 따위로 결코 요약될 수 없는 무한한 생명의 공부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화두를 정답이 숨겨진 문제처럼 접근하는 태도 역시 경계했다. 세상 사람들은 '이뭣고', '뜰 앞의 잣나무' 등의 화두를 문자 해석의 문제라고 접근하며 깊은 뜻이 담긴 비유라고 생각하지만 이는 잘못된 접근 방식이라는 게 수불 스님의 지적이다.

수불 스님은 "화두는 정답을 찾기 위한 도구가 아니다"라며 "오히려 정답을 찾으려는 나의 가짜 주체이자 분별하는 자의식을 끝까지 몰아붙여 완벽하게 무너뜨리기 위한 도구"라고 강조했다.

이어 "화두를 든다는 것은 '내가 무엇인가를 알고 있다'는 오만한 마음이 설 자리를 완벽히 박탈하는 작업"이라며 "의단타파의 대전환이 일어나면 나라는 허상이 무너지면서 우주만물과 직결된 본래의 나가 눈앞에 환히 드러나게 된다"고 밝혔다.

AI의 해설과 간화선 수행의 차이는 사구(死句)와 활구(活句)를 통해 설명했다. 경전과 선어록도 머리로 이해하는 지식에 머무르면 사구가 되며, 활구는 분별심과 알음알이를 끊고 수행자를 깨우는 말이라는 게 수불 스님의 설명이다.

스님은 "AI는 언어 데이터의 조합을 계산한 것이지 활구는 데이터의 조합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스님은 "정답만을 찾는 AI가 만든 사구를 더 많이 수집하려 애쓸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삶 속에서 '활구 하나를 바로 드는 일'에 간절히 임해야 한다"면서 "AI가 아무리 발달해도 활구를 들지 못한다면 활구를 들 수 있는 인간의 참선 공부는 AI시대에 가장 희유하고 숭고한 보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계가 정답을 쏟아낼수록, 인간은 정답 너머의 근원적 물음을 가슴에 품어야 한다. 기계가 세상을 유려하게 설명할 수록 인간은 자기 존재의 당체를 더욱 선명하게 밝혀야 한다"면서 "이것이 AI시대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엄숙하고 거룩한 메시지"라고 당부했다.

신중일 기자


안국선원장 수불 스님은 9월 17일 제7회 서울국제명상엑스포 명상콘퍼런스에서 'AI시대, 왜 다시 간화선인가'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진행했다.

명상 콘퍼런스 9월 17~18일 개최
수불 스님, 기조강연으로 문 열어
AI시대 화두 참구 필요성 강조해

2026 제5회
생명나눔대상
후보 공모

생명나눔실천본부는 올 한해동안 생명나눔 문화 확산과 이웃 사랑을 몸소 실천해온 개인 및 단체를 발굴하여, 그 공로를 널리 알리고자 하오니 뜻깊은 상의 주인공이 될 분들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 면

사단법인 생명나눔실천본부

선정기준
· 대 상 : 생명나눔 전 부문에 공로가 있는 개인 및 단체
· 홍보상 : 언론과 출판, 문화 부문에서 생명나눔 문화 확산에 공로가 있는 개인 및 단체
· 생명상 :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등록 활성화에 공로가 있는 개인 및 단체
· 나눔상 : 봉사 · 기부 문화 확산에 공로가 있는 개인 및 단체

상 금

구 분	인 원	시상내역
대 상	1	상패 및 상금 500만원
홍보상	1	상패 및 상금 100만원
생명상	1	상패 및 상금 100만원
나눔상	1	상패 및 상금 100만원

공모기간
2026년 10월 23일(금)까지

접수방법
· 제출 서류 : '제5회 생명나눔대상 수상후보자 추천 서식' (생명나눔실천본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 제출 방법 : 우편 혹은 이메일 제출 (lisa@lisa.or.kr)
· 주소 : 03150 서울 종로구 삼봉로 95 대성스카이렉스 101동 406호
· 문의 : (02) 734-8050

발표일정
· 수상자 발표 : 2026. 11. 9 (월) 예정
(홈페이지 공지사항 확인, 수상자 개별 안내)
※ 시상식 : 2026. 11. 14. (토) 남양주시 별내 별빛도서관 대강당

역대 대상 수상자 안내


제1회 (故)박원순 서울시장


제2회 배우 수지


제3회 윤근향 이사


제4회 혜수 스님